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보건정책 전문가가 되기 위해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과정 중인 주세진 학생은 보건정책 전문가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주세진 학생은 어린 시절 미국과 프랑스에서 10년 정도 살았다. 유학길에 오른 만학도 부모님을 따라간 길이었다. 당시 두 살이었던 주세진 학생은 어릴 때부터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과 소통하며 국제 이슈에 관심을 가졌고, 자연스럽게 이화여대 국제학부에 진학했다. 외국어 과외와 통·번역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와 학비 모두를 해결할 만큼 자립심도 남달랐다.

학업에 몰두하던 그에게 어느 날 미래를 결정짓는 비전이 생겼다. 탈북민 뇌연구 프로젝트에 학생 인턴으로 참여하고 교회에서 추진한 단기선교 봉사를 다녀오며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줄타기 하듯 위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마주했다. 이들을 만난 후 주세진 학생은 “앞으로 내가 해야 할 공부는 나를 위한 공부보다 국제적으

로 여러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공부가 되어야 한다”고 마음먹었다.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대학원에서 국제개발협력학을 전공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그의 비전은 좀 더 구체화됐다. 방글라데시 빈민촌을 방문한 후 세상으로 향하는 눈을 더 확장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여러 연구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다. 학업과 프로젝트를 병행하는 바쁜 와중에도 높은 학점을 유지해 성적 우수 장학금도 놓치지 않았다. 대학원 졸업 직전에는 UN 한국대표부 인턴으로 뽑혀 뉴욕 UN본부에서 국제 경험을 쌓는 등 다채로운

기회의 문들을 과감히 열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워 갔다.

졸업 후에는 2년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정책자문 및 국제기구 사업관리 연구원으로 일했다. 수출입은행의 EDCF(대외경제협력 기금)에서 경제발전경험 공유 사업인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정책 자문 사업을 담당할 때 두 달에 한 번 꼴로 해외출장을 갔다. 태국, 베트남, 몽골, 라오스, 우간다, 케냐, 이집트 등 술하게 많은 나라를 돌아다녔다.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바깥세상이 정말 치열하다는 걸 체감했고 그 치열한 세상 속에서 전문성과 지식을 바탕으로 제 창의력을 발휘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보건 정책 분야의 전문가를 꿈꾸며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주로 활동했던 주세진 학생이 보건의료의 중요성을 절감한 것은 5년 전, 몽골 울란바토르 빈민촌에 현지조사 차 출장을 갔을 때였다. 음식을 먹고 바이러스에 감염돼 복통을 동반한 구토, 발열, 어지럼증 등으로 며칠을 앓았다. 약을 구입해 먹었는데도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결국 돌아오는 날까지 시름시름 앓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가 치료를 받았는데 1시간도 되지 않아 증상이 사라졌다. 스스로도 병의 호전이 믿기지 않았다.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 시스템의 한계를 직접 체감하면서 교육이나 경제활동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생과사를 결정짓는 보건의료 분야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소속 연구원

몽고민주공화국에서 설문조사를 하는 주세진 학생.



으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KOICA 보건의료 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 더욱 강한 확신이 생겼다. 결국 지난 2021년 가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석사과정의 문을 두드렸다.

주세진 학생이 두 번째 석사과정을 시작한 이유는 명확하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다진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정책 중에서도 보건경제 분야의 전문성을 기르고 싶어서다. 과거 참여했던 성과관리사업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국제개발협력 보건의료 분야의 성과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의 프레임워크를 정립하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보건의료분야 사업은 건강증진이 기본 목표예요. 그러나 사람의 건강 향상이라는 무형적 가치를 수치로 정량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해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비용-효용분석, 비용-편익분석 등 경제성 평가를 실시한다면 정량적 단위로 환산할 수 있어 사업간 효과성 비교가 가능해져요.”

보건경제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주세진 학생은 박사과정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상에 보탬이 되는 사람

주세진 학생은 2022년 아산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되면서 향후 진학 계획을 세우는 데 큰 추진력을 얻었다. 사실 연구원 시절 모아놓은 돈으로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충당하기 빠듯했다.

“공부는 더 하고 싶은데 경제적인 면 때문에 고민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이루고 싶은 것이 연구에 집중해 논문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었는데, 아산재단 장학생이 되면서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고 그 덕에 진짜 내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좋아요. 제가 받은 만큼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주세진 학생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보건정책 전문가가 되어 개발도상국과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키우고 있다.  글 이지연